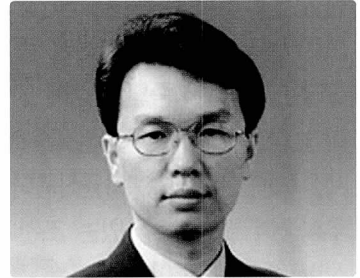


당뇨병환자의 치과시술

당뇨병환자의 치과시술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감염에 대한 위험성 증가와 창상치유 지연이다. 대부분의 치과치료는 출혈을 일으키고 창상을 남긴다. 만약 치과치료를 예정하고 있는 환자가 당뇨병환자라면 치과의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감염 가능성을 예방하거나 줄이고 창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치과 치료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러므로 당뇨병환자가 치과치료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환자 본인의 당뇨 병력을 상세히 치과 의료진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물론 병력은 상세할수록 좋다.



고 홍 섭 교수 | 서울대학교병원 구강내과

- (1)당뇨병환자로서의 기간 (2)당뇨를 위해 사용 중인 약물의 용량과 투여 횟수(인슐린, 경구용 혈당 강하제 등) (3)혈당점검 빈도와 방법 (4)가장 최근 측정된 혈당 수치 (5)내과에 내원하는 빈도 (6)인슐린 반응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횟수와 최근에 발생한 시기 등과 같은 병력

만약 최근에 내과에 내원한 적이 없거나, 규칙적인 혈당 체크가 되지 않았다면 응급 치과치료 이외에는 적극적인 치과치료를 받기 힘들 수도 있다. 필요시 치과치료 전에 혈당 검사를 시행하거나 내과에 자문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슐린 투여 환자 특히 주의

인슐린으로 혈당을 조절 중인 환자의 경우, 치과치료 중 인슐린 반응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인슐린 반응이란 식사를 제때하지 못하거나, 인슐린 주사 후 식사시간이 지연되었을 때, 혹은 혈당강하제나 인슐린 사용량이 지나쳤을 때 혈당이 정상 이하로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복

감, 발한, 현기증 등의 증상이 일어나고 의식장애와 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인슐린을 투여 받는 환자들은 인슐린 반응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치과치료 약속 전에 반드시 평상시와 같이 식사를 하고 통상적인 인슐린을 투여 한 후 내원해야 한다. 그리고 몸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오전 시간에 진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이때는 꼭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한다. 또한 치료 도중에 인슐린 반응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치과치료 중이라도 반드시 치과의사에게 알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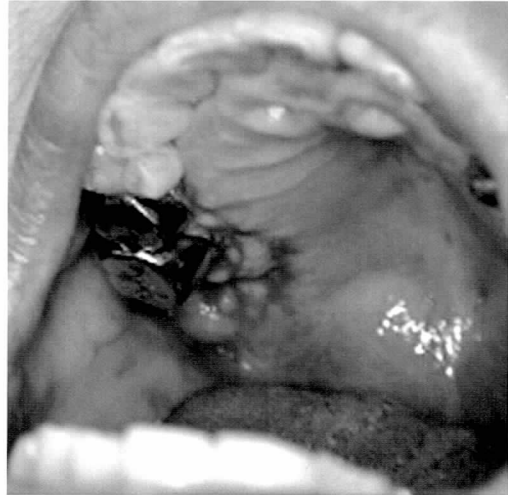
록 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오렌지 주스나 사탕과 같은 당 공급원을 치과치료 시 지니고 다녀야 한다.

꾸준한 혈당조절, 시술후 감염과 합병증 예방

당뇨병환자는 스케일링, 발치, 임플란트 시술 등 대부분의 치과치료 시 감염과 창상치유 지연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적절한 내과 치료를 받으면서 신장질환,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합병증 없이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는 당뇨병환자의 경우 일상적인 치과치료는 큰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 합병증을 갖고 있는 당뇨병환자의 경우 치과치료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주의를 기울일 경우 조절되지 않은 혈당으로 인해 일반인에 비해 치과치료 후 합병증이 발생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공복 시 혈당치가 200mg/100mL 이상인 경우(당뇨의 기준치는 126mg/100mL 이상)에는 치과치료를 시행할 수 없으며 꼭 필요한 응급 치과치료 만을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당뇨병환자에 있어서 감염의 위험은 환자의 공복 시 혈당 수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치과치료 특히 복잡한 구강 수술이 필요한 경우 시술 전에 혈당검사의 필요성이 있으며, 감염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시술 전에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 하는 경우도 있다. 사진은 당뇨병환자의 발치 후 나타난 창상치유 지연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일반 환자에 비해 창상 부위를 소독하여 주고 관리하여 주는 것이 당뇨병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다.



당뇨병환자의 발치 후 나타난 창상치유 지연

따라서 당뇨병환자는 치과치료 후 일반적으로 지켜야 하는 주의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켜야 한다. 예를 들면 (1)투약 받은 약을 정시에 정량 복용하고 (2)구강 양치 용액을 처방 받는 경우 규칙적으로 사용하며 (3)치료부위에 손가락을 대거나 혀로 빠는 행위를 피하고 (4)치과치료 후 음주나 흡연을 삼가야 한다.

잇몸 염증, 당뇨병환자에게 더욱 빈번

당뇨가 구강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증상은 잇몸 염증(치주염, 풍치)의 악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뇨병환자는 일반인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잇몸건강 상태를 규칙적으로 체크 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며 이와 함께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구강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당뇨병환자에서 치아 상실부위에 보철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 자신 스스로의 잇몸건강 관리 능력이 없다면 고가의 보철물은 수명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